

4~5» 기사를 통해 되돌아본 2016년



8» 몰래산타 · 경희후원의 집



2017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

1. 신청대상 : 재학생 및 입학예정자
2. 1차 신청기간 : 2016. 11. 17(목) ~ 12. 13(화)
3. 신청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및 서류제출



(사진=이수형 기자)

“대학이 기만” 청소노조 총장실 점거 직고용 ‘경희모델’ 사실상 무산에 항의 표시

청소노동자 ‘직고용’ 갈등 폭발

이수형 기자 dlttd112@khu.ac.kr

지난 2일 공공운수노조 경희대분회(청소노조) 주도로 우리대학 청소노동자들이 총장실 점거에 나섰다. 자회사 설립을 통해 청소 노동자 직고용 문제를 해결한다는 이른바 ‘경희모델’이 사실상 무산된 것에 대한 항의농성이다. 대학미화 외주업체인 C&S자산관리의 계약기간이 올해 말 만료되고, 대학이 다음해 초 용역업체 재경매에 나설 예정이기 때문에 이달을 놓치면 경희모델 설립시기가 최소 2년 연장된다는 것이 노조 측의 입장이다. 11시 경부터 총장실을 점거한 청소노조는 대학본부와의 회의가 끝난 오후 8시 경에야 철수했다. 대학본부는 지난해 자회사를 설립

해 미화용역을 사설업체에 위탁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대학이 직접 청소노동자 처우를 관리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에 청소노조 측은 ‘대학이 청소노동자를 직접 고용하라’고 주장하는 것에서 한 발 물러나 자회사 설립이라는 경희모델을 지지하고 나섰는데, 이후 설립계획이 차일피일 미루지면서 총장실 점거 사태에 이른 것이다.

청소노조 측은 사설 용역업체에 이용료를 제공하는 일에 의문을 제기한다. “용역업체로 들어가는 노동관리비가 노동자에게 들어오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것이다. 또한 2년을 주기로 용역업체가 청소노동자들을 재고용하는 형태도 문제로 지적한다. 청소노조 백영란 부분회장은 인터뷰 중 한 청소노동자를 가리키며 “재고용 때문에 71세 나이에 신입사원인 분도 있다”며 “연

차가 2년마다 사라지니 몇 년을 일해도 월급 140만원에서 벗어나지 못한다”고 말했다. 백영란 부분회장은 항의농성 당시 “지금껏 논의된 자회사 설립안을 학교가 저버렸으니, 이제는 직접고용만을 원한다”고 분개했다.

청소노조는 점거 당일 오후 6시

경 성사된 대학본부와의 회의결과에 따라 5일 오후 1시 총장주재의 노사회의에 참석한다. 해당 회의에서 경희모델 설립안 재검토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청소노조의 요구가 용역업체 재계약이 이뤄지는 다음해 초까지, 대학의 행동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학내 주요 단체 임원 선거 속속 마무리

학내 주요 단체 임원 선거가 마무리됐다. 교수회의의 경우 전체 교수회의 및 서울지회에서 이성근 교수가 409표를 받아 송상호 교수를 누르고 당선됐으며, 국제지회에서는 김재호 교수가 찬성률 92.3%로 의학지회에서는 이석환 교수가 86.5%의 찬성률로 각각 당선됐다. 직원노조에서는 김중현, 이광봉 후보가 215표를 받아 장백기, 김종민 후보의 205표를 제치고 당선됐다. 총학생회 선거에서는 양 캠퍼스 모두 투표율을 성사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의 경우 57.6%, 국제의 경우 63.9%의 찬성률을 기록 3분의 2 이상을 기록하지 못해 모두 낙선했다.

구멍 뚫린 선거시행세칙 ... 선거 운영에 혼란 키워

국제검 선거 파행

양윤혁 기자 yangyun0820@khu.ac.kr
김성수 기자 korkeep@khu.ac.kr

【국제】2017학년도 학생회 선거가 지난 23일 유여곡절 끝에 마무리됐다. 하지만 개표과정에서 총학생회(총학)와 총여학생회(총여)의 선거인명부가 뒤바뀌고, 일부 단과대학에선 자물쇠 열쇠가 총학 투표함에 함께 봉인되는 등 미숙한 선거운영이 반복됐다. 이런 문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선관위)의 미숙한 대응과 선거시행세칙의 허점 탓이다.

단과대학 학생회 선거는 임후보자가 없었던 생명과학대학과 국제대학을 제외한 6개 단과대학에서 치러졌다. 이중 ▲외국어대학(외대) ▲전자정보대학(전정대) ▲응용과학대학(응용대) ▲공과대학(공대), 총 4곳에서 선관위의 실수로 개표에 차질이 빚어졌다.

전정대에서는 선관위원들이 절차를 숙지하지 못해, 투표함을 열기 전에 진행돼야 했던 공명선거 및 선거의 결과를 인정하는 선서를 하지 않았다. 결국 임후보자의 이의제기로 개표 도중 뒤늦게 시행했다. 또한 최종 개표 결과를 저장한 문서를 유실

해 우리신문의 자료를 토대로 당선공고를 내기도 했다.

응용대에서는 투표함 자물쇠 부분의 서명이 문제가 됐다. 통상적으로 서명은 투표함 자물쇠와 테이프 부분에 걸쳐 표기돼야 한다. 임의로 개봉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응용대의 경우 테이프에만 서명이 이뤄져 사실상 자물쇠 개봉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였다. 더 큰 문제는 이와 관련된 사항이 세칙에 명시돼 있지 않고, 그동안의 관례에 따라 진행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중선관위 박수지(산업경영공학 2014) 위원장은 “밀봉 및 서명 등

에 대한 내용은 세칙에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아 지난 중선관위에 인수인계 받은 대로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외대의 경우 단과대학 학생회 투표함 열쇠가 총학·총여 투표함 열쇠와 뒤바뀌었다. 결국 해당 열쇠가 봉인된 물품보관함을 찾아 개봉하고 다시 밀봉하는 과정을 거쳐야 했다. 공대 제 3투표소에서 단과대학 학생회 투표함 열쇠를 총학·총여 투표함 열쇠와 함께 봉인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3면으로 이어짐

Newsmaker

2016년 대한민국 인재상 수상자
원종건(언론정보학 2012)



경험에서 나온 타인을 위한 삶

기호웅 기자 kihodori2@khu.ac.kr

#. 오늘날 대학생들에게 봉사활동은 졸업과 취업을 위한 ‘의무’가 돼버렸다. 봉사활동을 원래 의미와 다르게 하나의 스펙으로 생각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러한 시대에도 진심으로 타인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사람이 있다. 다양한 분야에서 적극적인 봉사활동을 인정받아 2016년 ‘대한민국 인재상’을 수상한 원종건(언론정보학 2012) 군을 만나봤다.

2005년 MBC에서 방영됐던 예능 프로그램 <느낌표>에는 각막기증과 수술로 시력을 회복하는 ‘눈을 떠요’라는 코너가 있었다. 이를 본 사람은 원 군을 기억할 수도 있다. 과거에 원 군과 그의 어머니는 이 프로그램에 소개됐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고 처음 아들의 얼굴을 보게 된 어머니와 아들이 포옹하는 장면에선 많은 시청자들이 눈시울을 붉혔다. 방송 이후의 삶에 대해서 원 군은 “나 자신을 위한 삶보다는 타인을 위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했다”며 “이러한 선택에는 어머니의 영향이 컸다”고 말했다. 실제로 원 군의 어머니는 수술 후 원 군과 함께 1층에 내려가 장기기증서 약서를 작성하며 “우리도 더 좋은 일 하는 사람이 되자”고 말했다고 한다.

성인이 된 이후 원 군은 본격적인 봉사활동을 시작했다. 네팔에서의 사진촬영 봉사, 교육 소외지역에서의 강연봉사, 그리고 51차례의 헌혈 등 그는 그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최선을 다해 봉사하고 있다. 그는 “봉사활동은 어려운 게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여유 있는 것들을 정

말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일부를 나눠주는 일이다”라며 “그것이 재능이든 시간이든 누구든지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고 봉사활동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진솔하게 전달했다.

오늘날 사람들이 봉사활동에 대해 갖는 태도에는 아쉬움을 표했다. “봉사활동은 다른 사람들을 위한 대가없는 행동이다”라며 “무언가를 위한 봉사활동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봉사활동을 졸업이나 취업의 요건으로 넣고 있는 사회시스템에 대해서도 문제를 지적했다.

봉사활동은 다른 사람들을 위한 대가없는 행동이다

그는 최근 병어리장갑을 엄지장갑으로 바꿔 부르자는 취지의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병어리장갑의 어원은 명확하지 않으며 우리들은 무심코 그렇게 부르고 있다”는 원 군은 “병어리라는 말이 장애인들을 낮잡아 부르는 만큼 다른 말로 순화해 보고자 프로젝트를 시작했다”고 말했다. 반응은 뜨거웠다. 프로젝트를 위해 시작한 크라우드 펀딩에는 모금 하루 만에 300만원이었던 목표 금액의 4배가 넘게 모였다.

시력과 청력이 약한 사람들의 소통을 돕고 싶어 언론정보학과에 진학했다는 그는 어느덧 사회로 첫발을 내딛을 준비를 하고 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심이 많은 그는 졸업 후 한 기업의 사회공헌담당자로 들어갈 예정이다. 취업 후에도 자신이 생각하는 ‘좋은 일’들을 지속적으로 할 예정이라는 그의 삶을 진심으로 응원해 본다.

알림

대학주보 SNS로
더 다양한 대학주보를 만나보세요!

페이스북 페이지 <https://www.facebook.com/khunews>

인스타그램 <https://instagram.com/khunews/>

유튜브 ‘대학주보’
https://www.youtube.com/channel/UC8t9_LCfmJ7dxw4THjUR0YQ

전문가 칼럼

헌법개정, 과연 필요한가
정완(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7면



이번 호가 2016학년도 2학기 중간호입니다

시선

사설

개인이 정치의 주인이 된 시대
총학은 어쩌해야 하는가

바야흐로 SNS의 시대다. 대중매체의 영향력을 압도하는 SNS의 위력은 4·13 총선, 브렉시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후보의 당선, 그리고 대통령 탄핵을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작금의 정치 국면 속에서 꾸준히 재확인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시대적 흐름은 ‘양 캠퍼스 총학생회 후보의 동반 낙선’이라는, 유례없는 사건을 맞닥뜨린 우리학교 학생 사회가 새삼 되새겨봐야 할 화두이기도 하다.

TV의 등장 이후 미디어학계는 대중매체의 절대적 영향력을 전제로 둔 다양한 수용자 효과이론을 내놓았다. 이런 이론들은 대중매체를 유의미한 정보의 단일한 유통 통로로 바라보며 대중을 의사결정에 외부의 영향을 받는 존재로 파악했다. 하지만 4·13 총선, 브렉시트, 도널드 트럼프의 대통령 당선 등이 예증하는 바는 ‘대중매체의 절대적 영향력’이라는 전통적 프레임이 더 이상 작동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제 대중은 주체적 판단능력을 지니며 네트워크상에 유통되는 정보를 자율적으로 판별·수용하며 필요시에는 그 네트워크를 통해 견고히 조직화하는 존재가 됐다. 이른바 ‘샤이 토리(shy tory)’, ‘샤이 트럼프(shy trump)’라고 불리던 그간의 ‘숨은 표’들은 실은 ‘숨어있던’ 것이 아니라 대중매체와 주류 미디어 이론이 놓쳤던, 실재적이고 영향력 있는 흐름이었던 것이다.

그런데 패러다임 시프트의 이토록 명징한 징후 앞에서도 대중 앞에 선(혹은 서려고 하는) 정치적 인물들은 이를 애써 외면하려는 경우가 잦다. 대중의 뜻이란 적극적인 탐색 없이는 그 실체를 명확히 보기 어렵고 대중의 뜻을 진정성 있게 갈구하는 자들을 제외한 대다수의 정치인에게 이는 마치 허상처럼 여겨지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많은 정치인이 대중을 지향하는 대신 자기 소속집단 안에 파묻히곤 한다. 불행하게도 이런 ‘소통 부족’의 모습은 우리학교 총학생회 선거 과정에서도 드러난다. 예컨대 서울캠퍼스에서는 특정 공약에 대한 구성원의 의구심과 논란이 지속됐음에도 불구하고 후보자는 이에 대해 구체적이고 상세한 피드백을 제공하지 않았다. 국제캠퍼스에서는 현 총학생회장 임기를 2개월 여 남겨놓은 상태에서 연임을 위해 중도 사퇴를 강행하면서도 학생들에게 어떤 동의도 구하지 않음으로써 논란을 부추긴 바 있다.

그렇게, ‘단선은 곧 당선’이라던 학생사회의 주요한 고정관념 하나가 무너졌다. 작금의 대중이 그러하듯, 경희대학교 학생들 역시 자신을 둘러싼 정치적 환경에 대해 민감하게 숙고한다. 그들은 선본이 제공하는 정보에 소위 ‘휘둘러’는 존재에서 벗어나 어떤 후보자가 왜 당선되어야 하는가에 대해 자율적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주체적으로 판단하는, 그 자체로 정치 집단화된 존재다. 이제 그런 학생들의 대표로 선다는 것은 곧 학생 개개인의 뜻을 묻고, 동의를 구하고, 진정성을 갖고 학생들과의 접점을 늘려나가 학생들로부터 인정을 받는다는 의미가 됐다.

바야흐로, 대표자의 아우라가 무너진 시대, SNS가 대중매체를 능가하는 시대다. 개별 구성원이 저마다 정치의 주체로 도약한 이 시대에 ‘정치’의 양상은 어떻게 변모해야 하는가? 이것이 이번 선거를 통해 학생사회가 ‘총학생회’에게 던지는 매서운 질문일 것이다.

경영대학 연합학술제
우리학교 ‘M1492’ 최우수상

미디어 여론동향 2016. 11. 21~12. 4

여론동향팀 khunews@khu.ac.kr

지난달 24일 오비스홀에서 우리학교, 건국대, 서울시립대, 한국외대 총 4개 대학의 ‘경영대학 연합 학술제’가 열렸다.(제2회 경영대학 연합학술제 ‘ACADEMI KKHUS’ 열려/대학주보 온라인, 2016.11.28) 학술제에서는 회칙 문제에 대한 경영학적 접근방법과 해결방안 제시를 주제로 경쟁PT가 진행됐다. 대상을 수상한 서울시립대 ‘빌리오와 줄리엣’팀은 자취생들이 방을 사용하지 않는 기간에도 임차료를 지불하는 상황에 대한 해결방안을, 최우수상을 받은 우리학교 ‘M1492’팀은 음식점 등을 예약하고 나타나지 않는 ‘노쇼’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각각



이 주의 주제 - 선거관리위원회 개표 문제

‘무지’는 ‘무책임’일 뿐이다



우리는 모두 실수를 한다. 모두가 한다고 해서 실수를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된다. 실수에는 책임이 뒤따른다. 책임을 요구하지 않는 실수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실수에 따른 책임을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다. 때로 우리는 광화문에 모여 ‘책임지고 물러가라’고 외치지만, 정작 자신에게는 그 목소리를 아끼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왜 우리는 자신에게만 관대해질 수 있을까.

이번 2017학년도 국제캠퍼스 학생회 선거에선 반복된 실수로 인해 진행 과정에 차질이 빚어진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다. 각 단과대 선거에서는 ▲투표함 봉인 서명 실수 ▲투표함 열쇠 뒤바뀜 ▲선거 결과 파일 유실 등이 일어났다. 총학생회, 총여학생회 선거에서는 투표함이 뒤바뀌기도 했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개인의 ‘사소한 실수’에서 말미암은 문제들이었다. 바뀐 말하면 이 문제에 대한 책임은 실수를 저지른, 선거를 관리한 책임자에게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조금만 더 신경을 썼다면, 한번만 더 꼼꼼하게 확인했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문제였다. 하지만 차곡차곡 쌓인 실수는 선거의 막바지 과정이라 할 수 있는 개표 과정에서 터졌고, 선거 관계자들은

투표함을 옆에 두고 지나간 회의를 해야 했다. 공정한 선거는 그 과정에 참여하는 모두의 노력으로 이뤄진다. 선거관리위원회, 선본, 후보자, 개표를 지켜보는 언론 등 떠나 할 것 없이 책임감 있게 과정에 임해야만 문제없이 선거가 마무리될 수 있다. 역할에 충실하지 못했던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고, 책임자의 실수로 발생한 문제는 선거에 관련된 모두가 나눠가져야 했다.

실수는 할 수 있다. 아쉬운 것은 문제를 빚고 난 이후 선관위의 태도였다. 그들은 각 단과대학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사과문을 게시했다. 사과문에서는 ‘책임이 본인에게 있다’고 말할 뿐,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무언가를 하겠다는 내용은 없었다. 사과문 한 장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냉정하게 말해보자면 이는 현재 대한민국 정치 상황과 다를 게 없다고 생각한다. 어쩌면 현 정부는 5분 남짓의 대국민 담화로 국민의 분노를 잠재울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혹여나 그들도 같은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다.

사과문에서는 하나같이 “개표 진행 과정에 대한 속지가 미숙했다”라는 변명을 하고 있다. 현대민주사회에서 “잘 모르겠다”라는 말은 변명이 될 수 없다. 무지는 무책임일 뿐이다. 선관위는 잘못이 있다면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이미 벌어진 일이다. 이번 시행착오를 계기로 앞으로 선거에서는 여태 빚어진 문제가 다시금 발생하지 않도록 선거 시스템을 정비하고, 선관위 장에게 본인의 역할에 대해 책임의식을 가지는 것을 요구한다.

제시했다.

2017학번을 선발하는 수시 시험이 차츰 치러지며 한 해가 가는 감상에 온라인 커뮤니티 페이스북 대나무숲이 들썩였다. ‘**경희대 합격했어요**’라는 글(**#경희학****18395**, 2016.11.29)의 글쓴이는 ‘이제 경희인 ... 떨리네요’라고 입시 합격을 전했다. 580개의 ‘좋아요’를 받은 이 글에 학생들은 ‘우사세, 시민교육, 인가탐의 노예가 또 하나’, ‘작년의 날 보는 것 같다’ 등의 의견을 남겼다. 한편 **첫 후배를 맞이하는 16학번의 감상**도 있었다.(**#경희학****18279**, 2016.11.24) 글쓴이는 ‘곧 또 다른 새내기가 들어온대요’라며 ‘제가 새내기일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 한번이라도 더 외쳐볼게요, 나는 새내기다!’고 썼다. 388개의 ‘좋아요’를 받은 이 글에 학생들은 ‘이제 군대 가라’, ‘98년생이 벌써 대학생이라니’ 등의 의견과 가는 세월에 대한 넋두리를 남겼다.

건축학과 학생들이 ‘2016 BIM AWARDS’에 대거 입상했다.(**건축학과 학생들, ‘2016 BIM AWARDS’ 5팀 수상/대학 홈페이지 Focus**, 2016.11.24) ‘BIM AWARDS’는 컴퓨터를 활용해 건설 설계부

터 준공까지의 과정을 모델링하는 첨단 기술인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분야의 국내 최대 공모전이다. 건축학과 학생 5팀은 대상인 국토교통부장관상을 비롯해 우수상, 장려상 등 총 5팀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장관상을 수상한 배기민, 주유진, 진인수 학생은 도시 노후화를 해결하기 위해 여수역 부지를 선정, 생태·관광도시로 거듭난 여수의 이미지를 건축물에 접목하고 지속가능성을 위한 디자인을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경희대 국제대학교 선플재단이 22일 건전한 사이버 문화 조성과 긍정에너지 확산을 위한 ‘선플운동 실천 협약’을 체결했다.(**선플재단-경희대 국제대학 ‘선플운동 실천협약’**, 공식 봉사활동 인정/YTN 외, 2016.11.22) 경희대 국제대학교와 선플재단은 ‘선플캠페인’을 공동 추진하고, 국내 대학 최초로 선플 달기 활동을 자원봉사 학점으로 인정할 계획이다. 체결식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은 “청소년들에게 칭찬과 응원의 한마디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2007년 시작된 ‘선플운동’에는 7천여 개 학교와 63만 명의 회원이 참여하고 있다.

학내 민주주의에도
관심이 필요하다

세시봉

기호웅 (뉴스총괄팀장)



매주 광화문을 비롯한 전국에서 시위를 위해 모이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며 놀라곤 한다. 그들의 하나된 목소리를 통해 국민들은, 어느 위정자가 말했던 것과 달리 ‘개·돼지’가 아니었음을 확인하고 있다. 폭력 없는 평화적인 시위모습을 보면 성숙한 시민의식도 확인할 수 있다. 앞으로 시국이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그동안 잠잠했던 국민들이 역동적으로 의견을 표출하는 모습을 통해 대한민국 정치에 다시금 희망을 갖는다.

학생자치의 문제는 어떻게? 국내정치는 중요하고 학내사안은 그렇지 않을 리 없다. 최근 한 해를 되돌아보며 기사들을 정리할 때 마다 아쉬운 점들을 많이 느꼈다.

대부분은 대학주보 기자로서 더 많이 공론화할 수 있는 기사를 쓰지 못했다는 것이지만, 학생들의 관심과 반응이 기대에 못 미치는 경우가 있었다.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면 학생들은 근본 원인을 찾고 해결하기보다는 마녀사냥 식으로 관계자 신원을 파헤치는데 급급한 모습이었다. 또는 부조리한 모습을 직접 보고 겪으면서도 ‘이 문제는 오랫동안 유지돼 왔기 때문에 바꿀 수 없다’며 침묵한다. 도저히 참지 못할 지경에 이르면 이미 어디서부터 손써야할지 모르는 상황이 된다. 침묵 속에 민주주의는 없다.

종종 우리학교의 교훈은 무엇인지 생각한다. 많은 이들이 잊어버렸겠지만 ‘학원의 민주화’, ‘사상의 민주화’ 그리고 ‘생활의 민주화’이다. 하지만 학생들의 주체적인 태도 없이 민주주의가 존재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이 학교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는 구성원으로서 ‘학생’인 우리가 우리 문제를 타인에게 맡기고서는 자치를 이야기할 수 없다. ▲입학금, 등록금, 장학금과 같은 금전적인 문제 ▲교수, 강의실, 실험 실습비 등 교육환경 문제 ▲카페, 식당, 기숙사 등 생활환경 문제 등 학교생활과 직접 연결되는 사안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그 중에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면 바꿀 수 있는 내용도 있다. 하지만 학내문제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은 싸늘하다.

학생들의 관심과 참여가 낮아질수록 이를 이끌어갈 학생회의 존재가 중요하지만 이번 2017학년도 학생회 선거에서 양 캠퍼스의 단종 총학생회 후보들이 모두 낙선하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졌다. 단과대학 선거에서 경선은 보기 어려워졌고, 3개 단과대학(정경대학, 생명과학대학, 국제대학)에서는 후보가 없어 선거조차 치르지 못했다. 단선도 감사할 따름이다. 앞으로 총학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이끌어 나가겠지만 선장 없는 학생회의 모습은 바람 앞의 등불 같다.

정치란 멀리 국회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지금 내가 속한 집단 그리고 사회의 문제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정치의 시작이다. 학내 사안에 조금만 더 관심을 갖는다면 더 많은 것들을 바꿀 수 있다. 그런 점에서 학생 자치는 정치적 첫 경험이다. 이미 흘러간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내년에는 보다 좋아질 모습을 기대한다. 새롭게 등장할 총학과 학생들 그리고 우리 대학주보의 모습을.

알림

대학주보에
당신의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대학주보는 늘 열려있습니다. 여러분이 겪은 모든 일을 이야기해주세요. 무엇이든 좋습니다. 사소한 추억부터 어려운 상황까지 함께 나눠주세요. 늘 당신의 옆에 있겠습니다.
http://www.mediakhu.ac.kr/khunews/inform_us_list.asp



교훈 학원의 민주화 | 사상의 민주화 | 생활의 민주화 경희대학교

대학주보

1955년 5월 12일 창간(주간)
발행·편집인 조인원 | 주간 김혜경 | 편집장 김도엽 | 제작/인쇄 중앙일보미디어디자인(주)
구독료 1년 1만 원 | 구독 02-961-0093-4 | 주소경영 02-441-7317(미래71회)
인터넷 대학주보 <http://media.khu.ac.kr> | 이메일 khunews@khu.ac.kr

서울캠퍼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26(회기동) / Tel 02-961-0093-5
국제캠퍼스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덕영대로 1732(사천동) / Tel 031-201-3230-2, FAX 031-204-8121

▶1면에서 이어짐

실수를 빚었던 외대 주보현(한국어학 2014) 선관위원장은 “개표 자체가 신중하게 진행돼야 하는 것이고 매끄러운 진행을 위해 선관위원장으로서 신중을 기했어야 했다. 실수가 발생해 죄송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중선관위 구성은 지난 10월 31일 총학생회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공지됐다. 이를 바탕으로 본다면 선관위원들은 개표가 시작된 22일까지, 약 3주간 세칙을 숙지해야 한다.

그럼에도 공식적인 투표와 개표에 대한 교육은 각각 1차례만 진행됐을 뿐이다. 중선관위 박수지(산업경영공학 2014) 위원장은 “중선관위 회의 때마다 필요한 부분의 세칙에 대한 논의는 꾸준히 해왔다”며 “공식적으로는 중선관위가 모여 각 선관위원장에게 투표 일주일 전에 투표에 관한 교육을, 개표 이틀 전에 개표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하의 선관위원들에 대해선 각 선관위원장이 교육을 진행했다고 덧붙였다.

중선관위 구성 이후 3주의 기간

교육은 투표·개표 각 1차례

중선관위 박 위원장은 교육을 진행했다고 해명했지만 총학과 총여 선거에서도 문제는 마찬가지였다. 특히 총학 개표과정에선 ▲국제대학 투표소의 총학, 총여 선거인 명부가 뒤바뀌고 ▲국제대학 투표소에 위치했던 선본 측 참관인의 선거인명부 서명이 누락됐으며 ▲생명과학대학 투표소의 선거인명부에는 생명과학대학 선관위원장이 1차 밀봉 서명을 하지 않았다. 또한 ▲체육대학 투표소의 선거인명부에는 체육대학 선관위원장이 총 3번 서명해야 했으나, 3칸에 걸쳐 한 번만 서명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런 문제들이 연이어 발생해 오후 8시 30분에 시작된 개표절차는 결국 지난 24일 오전 12시 15분이 돼서야 실제 개표에 들어갔다. 결국 총학 개표는 오전 5시 30분 경이 돼서야 마무리됐다.

현재의 선거세칙에는 앞서 열거한 것과 같은 문제들이 발생했을 때에 대한 지침이 없다. 결국 개표절차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매번 중선관위와 선본 측의 합의를 통해 조치를 취했다. 심지어 선거의 유·무효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오차율’ 계산 방식마저 중선관위 합의를 통해 변경한 바 있다.

선거시행세칙 36조에서는 선거구를 ‘독립적으로 학생회장을 선출할 수 있는 단위’로 일반적으로 유권자들이 있는 건물과 활동하는 장소’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투



지난 11월 23일 국제경영대학에서 진행된 총학생회 개표 당시 (사진=양윤혁 기자)

“
현행 선거시행세칙,
발생 문제에 대한 지침 없어
결국 매번 중선관위 합의로

“
* 롤미팅 : rule-meeting
중선관위와 후보자가 만나 포스터, 홍보 방식 등 선거 세부 지침을 합의한다.

표소와는 다른 개념으로, 독립적인 학생회장을 선출할 수 없는 멀티미디어관과 학생회관은 선거구로 인정될 수 없다. 지난 선거까지는 각 단과대학을 선거구로 보고, 총학 개표에 있어서도 단과대학별로 오차율을 산출했다. 반면에 이번 총학·총여 선거에서는 중선관위 합의에 따라 ‘학교 전체’를 하나의 선거구로 해석해 모든 투표소의 오차율을 합산해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세칙의 근간인 선거구 개념
오차율 산정 방식까지 흔들려

기존의 해석대로 오차율을 계산할 경우 분명 문제가 존재한다. 선거구를 각 단과대학으로 판단할 경우 오차율이 3% 이상 나온 선거구만 재선거를 진행하게 된다. 이럴 경우 기존에 투표했던 사람에게만 투표권을 제공할 것인지, 아니면 해당 선거구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 모두 재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지 세칙 상 제시된 내용이 없어 모호한 상황이다.

특히 멀티미디어관이나 학생회관 투표소 같이 단일 선거구가 아니면서 오차율 집계는 별도로 해왔던 곳에서 오차율이 3% 이상 발생할 경우 문제가 더욱 복잡해진다.

해당 투표소에서 투표했던 사람만 다시 투표할 수 있다면, 일일이 선거인명부에서 대조해야 하는데 물리적으로 원활한 진행이 불가능하다. 반대로 해당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 모두 재투표한다면 사실상 전체 재선거와 다를 없게 된다. 때문에 이번 중선관위가 합의를 통해 결정한 것과 같이 총학·총여 선거에서는 ‘학교 전체’를 하나의 선거구로 보고 오차율을 계산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에 대해 박 중선관위원장은 “작년과 같이 각 투표소 별 오차율을 적용하게 되면 재선거 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총학의 회원은 모든 학우이므로 학교 전체를 선거구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선거시행세칙 51조 3항 마에는 ‘각 선거구 별 투표용지, 선거인명부, 인터넷명부 간의 오차가 3% 이상일 경우 선거를 무효로 하고 재선거를 실시한다’고 돼 있다는 점이다. ‘각 선거구별’이라는 표현 자체가 복수의 선거구를 염두에 둔 표현이기 때문에, 사실상 단일 ‘선거구’로 해석한 중선관위의 결정과 충돌하게 된다.

이외에도 현행 선거시행세칙의 허점은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우선 총학회장의 연임 가능 여부, 연임 시 중선관위 구성의 특

수성상 발생할 수 있는 유착가능성 등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다. 더불어 카카오톡과 같은 모바일메신저를 통한 선거활동의 구체적 범위와 제한 사항도 없다. 결국 이런 문제 모두 중선관위가 합의를 통해 결정했다. 게다가 현재 종이테이프와 청 테이프로 투표함을 밀봉하고 각각 박스에 걸치게 서명하도록 하는 등 철저히 관리돼야 하는 투표함 관리조차 관례에만 의존하고 있다. 이런 수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선거시행세칙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는 문제제기는 매년 있었으나, 대대적인 수정 없이 일부 문구를 수정하거나 조항을 추가하는 선에서 그쳤다.

무엇보다 중요한 투표함 관리
관례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

현재 중선관위원장과 함께 총학회장직을 대행하고 있는 박수지 부회장 역시 개정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박 부회장은 “중선관위 회의를 진행하는 동안 세칙의 모호함과 잘못 해석될 여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 인지했다”며 “오는 선거가 진행되기 전에 확대운영위원회를 진행해 세칙개정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2017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 안내

- **신청대상** : 재학생 및 입학예정자
- **1차 학생 신청기간** : 2016.11.17.(목) 09:00 ~ 12.13.(화) 18:00
 - ※ 일·공휴일 포함 24시간 신청가능(마감일 제외)
 - ※ 재학생은 반드시 1차에 신청할 것 (단, 재학 중 1회에 한해 2차 신청이 가능하며, 구제신청서 제출 시 재심사 가능)
 - ※ 원활한 신청을 위한 권역별 집중 신청 기간 운영
 - 기간 내 권역과 상관없이 모두 신청 가능하나, 가급적 권역별 집중 신청기간에 신청할 것을 장려함

수도권(서울, 경기 지역)	수도권 외
2016.11.17.(목) ~ 12.08.(목)	2016.11.22.(화) ~ 12.13.(화)

- **서류제출 및 가구원 동의**
 - 2016. 11. 17.(목) 09:00 ~ 12. 16.(금) 18:00
- **신청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온라인 신청 및 서류제출
- **문의** : 한국장학재단 고객센터 상담센터 1599-2000

한국장학재단

제10기 한국 대학생 박물관·미술관 문화시민봉사단 모집

경희대학교 혜정박물관에서는 한국박물관협회에서 주최/주관하며 문화체육관광부 후원으로 진행되는 <제10기 한국 대학생 박물관·미술관 문화시민봉사단>을 모집합니다. 대학생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 사업은 본 박물관을 비롯한 전국의 7개 박물관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박물관협회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시오.(http://www.museum.or.kr/)

- **신청자격** : 박물관·미술관에 관심 있는 전국 대학생 및 휴학생
- **참여인원** : 000명
- **봉사기간** : 2017년 1월 ~ 2월 말(세부일정은 관과 봉사자 간 조율)
- **참여혜택**
 - 자원봉사활동 확인서 발급(※최소 50시간 이상 활동자에 한함)
 - 박물관·미술관관련 교육(기본소양교육) 12월 23일(금) 예정
 - ※ 교육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추후 별도 공지
- **모집기간** : 11월 3주 ~ 12월 3주 (자세한 일정은 추후 협회 홈페이지에 공지)
- **접수방법**
 - Step1. 문화체육자원봉사홈페이지(http://csv.culture.go.kr) 통해 접수 (봉사 완료 후, 봉사활동확인서 발급을 위해 필수가입 요망)
 - 회원가입 → 통합검색창에 한국박물관협회 "제10기 한국 대학생 박물관·미술관 문화시민봉사단 모집" 제목의 글 검색 → 신청하기 클릭
 - Step2. 서류 제출(kormuseum@hanmail.net으로 제출)
 - ① 대학생 자원봉사활동 신청서(한국박물관협회 홈페이지에서 다운)
 - ② 재학/휴학 증명서
- **서류전형/면접** : 12월 3주 ~ 12월 31일(토)/ 해당 박물관·미술관에서 진행
 -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면접을 진행하며, 봉사희망 박물관·미술관 면접 결과에 따라 2017년 1월부터 배치 예정
- **문의** : 02-795-0959 / 김보현 (한국박물관협회 담당자)

경희대학교 혜정박물관

2016-2 온라인 성인지 향상 이벤트

성평등상담실에서는 경희재학생들의 성 인지 향상을 위해 온라인 향상 이벤트를 실시하오니 재학생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 바랍니다.

대상 : 경희대학교 서울캠퍼스 학부 재학생
기간 : 2016. 11. 14(월) ~ 2016.12.11 (일)

● 참여방법

1. 경희대학교 성평등상담실 홈페이지 접속한다.
(http://web.khu.ac.kr/~happyou/)
2. 홈페이지 첫 화면의 폭력예방 온라인 교육 (1~4)를 모두 수강한다.
3. 홈페이지 공지사항의 폭력예방 퀴즈 양식 다운로드 후 답안을 작성한다.
4. 성평등상담실 이메일로 제출한다. (happyou@khu.ac.kr)

● 다 맞은 사람들에게 한하여 주점을 통해 아래와 같은 상품을 드립니다.

- 1등 셀리 보조배터리 (14명)
- 2등 플스킨 x 라인 다이어리 (16명)
- 3등 브라운 모수 필블러 (14명) or 브라운 32GB USB (14명)
- 4등 초코쿠션 (12명) or 5단 미니 우산 (13명)
- 5등 스타벅스 기프트카드 (130명)



● 결과발표 : 2016.12.13 (화) 14시 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개별문자

저물어 가는 2016, 한 해를 돌아보다

1월

SPACE21 사업 어디까지 진행됐을까?



SPACE21 사업이 한창 진행중이다. 국제캠퍼스(국제캠)에서는 종합체육관을 신축하고 있으며 외부 마감공사와 기계전기 공사를 진행 중이다. 11월까지 공정율은 약 80%다. 서울캠퍼스(서울캠)에서는 한의대·이과대·간호과학대가 입주할 쌍둥이 빌딩의 경우 지상 7층 철근콘크리트공사를 진행 중이며, 12월 1일 기준 공정율은 63%다. 또한 시계탑 철근 콘크리트 공사가 한창인 서울캠 행복기숙사 건립 사업의 12월 1일 기준 공정율은 72%다. 행복기숙사는 2017년 2월 말, 전체 사업은 2017년 6월 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2월

체육대학 38만 원 오티비 논란, 학생들 비난 쏟아져

지난 2월 14일, 경희대학교 대나무숲에는 ‘체육대학(체대) 오티비 38만 원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다’는 내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숙박비 9만 4천 원, 행사비 2만 원, 단체복 15만 원 등의 항목으로 구성된 38만 원의 오티비는 많은 학생들의 공분을 일으켰다. 다음날인 15일, 체대 학생회는 ‘오티비 38만 원’ 논란에 대해 실제 오티 참가비는 12만 원임을 밝히며 예산안을 온라인에 공개했지만, 실제 집행금액을 확인할 수 없을 뿐더러 영수증 또한 첨부하지 않아 더욱 논란이 됐다. 공개된 예산안의 일부 내용도 논란을 가중시켰다. 실제 제 2기숙사가 받은 숙박비,



식대는 각 1만 원, 4천 원 인데 반해 예산안에는 각 1만 2천 원, 5천 원으로 더 비싸게 책정돼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체대 행정실장은 “스태프 숙식 지원 금액이 일정 부분 숙박비와 식대에 포함돼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체대 학생회는 스태프 숙식 지원 항목을 따로 기재하지 않고 숙박비와 식대를 올려 받은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다. 단체복 또한 비싸게 책정돼 있었다. 예산 내역에 단체복 한 벌 가격은 13만 7천 원으로, 실제 단체복 명목으로 걷은 15만 원과 1만 3천 원의 차이가 난다. 이후 이 돈은 학생회 단체패딩을 맞추는데 사용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후 체대 학생회는 대자보로 결산서를 공개했지만, 영수증은 학생회실에 있다는 문구로 학생들의 질타를 받았다.

3월

내년엔 청소노동자 직접고용 가능할까

지난 3월 우리학교에서 한국노총, 한국철도 소속 청소노동자들이 ‘용역비 임금인상 약속 이행’을 촉구하는 집회가 열렸다. 우리학교를 포함한 대다수 대학은 청소노동자를 용역업체를 통해 간접고용하고 있다. 인력관리를 손쉽게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직접 고용시 발생하는 비용부담에서 자유로울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대학가에 불거지고 있는 청소노동자 부당처우가 이런 고용형태에서 비롯된다는 점이다. 학교가 용역업체를 사이에 두고 청소노동자를 고용할 경우, 대학은 비용만 지급하기 때문에 노동환경에 대한 관리의 책임이 용역업체에서 담당하게 된다. 따라서 대학은 도의적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 이에 우리학교 청소노동자들은 노조를 설립하며 스스로 근무조건을 개선하고 권리를 되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역업체를 통한 고용이 지나는 본

질적 문제를 해결하기는 힘든 상황이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2017년부터 청소노동자를 직고용하는 ‘경희모델’의 시행여부를 두고 논의가 지속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다. 대학본부 측은 “총장 결재만 남은 상황이지만 회의를 들어가 봐야 결과를 알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4월

‘미래 대학’을 위한 ‘21세기 대학혁신위원회’ 출범



지난 4월 11일, ‘미래대학리포트’를 통해 수립된 구성원의 요구사항을 실현하고, 대학의 효율적인 행·재정 시스템 구축을 위해 조직된 ‘21세기 대학혁신위원회’(혁신위)가 공식 출범했다. 총장 산하에 ‘교육·실천 혁신위원회’, ‘학술·진흥위원회’ 등 양 위원회와 ‘실행위원회’, ‘기획위원회’, ‘행·재정 혁신지원단’으로 구성된 혁신위는 서울캠 후마니타스칼리지 학장이기도 한 유정완 사무총장을 필두로 운영된다. 5월에 혁신위는 기획·재정 거버넌스 재편을 위한 TF(Task Force)를 구성한 후 공청회를 실시했다. 재편은 기획·재정 거버넌스 강화와 행정 거버넌스 효율화를 기조로 이루어졌다. 여기에는 양 캠퍼스 인사팀이 ‘인사처’로 통합 운영되며, 홍보실과 출판문화원을 통합해 커뮤니케이션 센터로 바꾸는 내

용 등이 포함돼있다. 이후 8월에는 ‘미래창조스쿨’ 계획을 발표했다. 미래창조스쿨은 하나의 ‘인증제’로, 미래창조스쿨이 지정하는 교과들의 이수를 통해 졸업 시에 인증을 받을 수 있으며 당장 다음 학기부터 시행된다. 하지만 이러한 내용은 언론보도를 통해 먼저 알려져 학생들의 혼란을 가중시켰다. 9월에는 교육·실천 혁신위원회의 주최로 수강신청 제도 변경에 관한 회의를 열었다. 회의 결과, 희망과목당기를 없애고 전공선택과 교양과목에서 수강인원의 제한 없이 우선적으로 수강신청이 가능하게 하는 개선안이 나왔지만, 아직 확정단계는 아니다. 또한 10월에는 학생들의 의견을 듣기 위한 ‘대학혁신 학생기획단’을 모집하기도 했다.

5월

프라임사업 최종 탈락... 계획 사업도 예정대로 추진



우리학교가 산업연계교육 활성화 선도대학(프라임, prime)사업에 최종 탈락했다. 우리학교는 학교 발전방향과 프라임사업의 취지가 일치한다는 이유로 지난해 11월부터 프라임 사업을 준비해왔다. 프라임사업은 올해 가장 중점을 둔 사업이었고 많은 학생들의 이목을 끌었지만 결국 최종 선정에는 실패했다. 지난 5월 3일 교육부와 한국 연구재단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우리학교가 지원했던 총 정원 10% 이상을 이동해야 하는 대형(사회수요선도대학)사업에는 건국대, 숙명여대, 한양대(ERICA)등 수도권 대학 3개 대학을 포함해 총 9개 학교가 선정됐다. 이화여대 등이 신청한 소형 유형에는 12개교가 선정됐다. 우리학교의 탈락 이유로는 선정 대학 대비 정원 이동 규모에서 차이가 나는 점, 구성원 합의 과정에서의 갈등 등

[서울] 2017-1학기 교내장학금 신청 안내

★ 2017-1학기 교내 우정장학을 수혜받으려면 “2017-1학기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 1차 신청”을 완료하여야 합니다(국장 수혜여부와 무관).
2017-1학기 국가장학 1차 신청기간 : ~ 2016.12.13(화) 18시
교내장학 신청기간 : 2016.12.1.(목)~12.31(토)

- 신청기간 및 대상
 - 신청기간 : 2016. 12. 1(목) ~ 12. 31(토)
 - 신청대상 : 정규학기 학부 재학생 전체
 - ※ 1. 기존 교내(입시/보훈/경희가족/고시 등) · 교외 계속장학생도 반드시 교내장학금 신청
 - 2. 장학규정에 의거, 장학금은 신청자에 한하여 지급함.
 - 3. 장학 선발자가 2017-1학기 휴학을 고려할 경우, 본인의 장학 수혜내역 확인 후 신청여부를 결정할 것 (휴학자는 장학선발이 불가하며, 미등록시 선발이 취소됨, 등필유학은 장학이월이 가능함)
- 신청방법
 - 구 분 내 용
 - 신청방법 종합정보시스템 → 인터넷신청 - [장학/용자신청] - 「교내장학금」 신청
 - 1. 2017-1학기 우정장학, 우수장학, 모범장학, 밝은사회장학 등의 장학 신청을 “2017-1학기 교내장학금 신청”으로 통합함.
 - 2. 장학금신청서와 자기소개서는 온라인으로 작성하며, 신청서는 제출하지 않음.
 - 3. 가계관한 증명서류 제출 없음 ※ 단, 우정장학 수혜희망 학생은 국가장학 1차 신청을 반드시 필해야 함.
 - 4. 장학신청시 소속 단과대학에서 성적우수장학관련 별도 여학생적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구 분 해당자 및 제출서류
 - 소속대학 행정실 - 고시합격자(신규) : 고시 합격증명서 1부
 - 장애헤어생지원센터 - 장애학생 : 장애학생지원센터에 등록(학생본인의 장애인 등록카드 사본 1부)
 - 장학지원자 장학지원자 장학팀 - 보훈장학(신규) : 대학입학금 및 수업료면제대상자증명서(보훈지청 발행) 1부
 - 경희가족장학(신규) : 보호자 재직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 ※ 기존 계속장학(입시,보훈,경희가족장학) 중 복학예정자는 복학신청기간에 신속히 복학처리요망
- 지급 제한 장학금 지급규정에 위배된 자
- 장학금 지급방법/등록절차 등록금지원장학금 : 등록금 고지서에 학비감면, 등록금의 지원 장학금 : 학기중 계좌이체(대출자 대출상환)
- 2. 등록금 : 등록금내에 지정된 금융기관에서 반드시 등록을 필해야 함.
- ※ 고지서 납입액이 “원인 전액 장학금도 반드시 지정된 금융기관에서 등록 결제(은행수납인)를 필해야 함.
- 참고사항 1. 우정장학 문의 : 장학팀(961-0045)
- 2. 우수장학, 밝은사회장학(단과대학회 장학) 문의 : 소속 단과대학(전공) 행정실
- 3. 밝은사회장학(총학생회, 신문방송국 중앙도서관, 학군단) 문의 : 학생지원과 및 소속 봉사부서
- 4. 전과생의 경우 전출(전입)하는 학기에는 소속 단과대학 학부(과)에서 선발하는 우수장학을 수혜할 수 없음(단, 우수장학 외 타장학금은 수혜 가능).
- 5. 입시학생맞춤형장학금이 2017-1학기에 휴학할 경우, 입시장학 외의 타장학수혜가 없을 경우에는 2017-1학기 등록을 하지않고 휴학 요망(미등록유학).
- 6. 위 기간 내의 장학금 미신청자는 2016-1학기 장학금 선발대상에서 제외됨.
- 7. 2017-1학기 복학생은 2017-1학기중 별도로 우정장학 신청받음.

[서울] 2016-2학기 모자이크장학 신청 안내

학생 맞춤형 장학제도!
“여학생적 · 자가격 취득, 수상, 봉사한 학생들 장학금 놓치지 마세요!”

- 신청기간 및 대상
 - 신청기간 : 2016. 12. 1(목) ~ 12. 18(일) [3주간]
 - 신청대상 : 직전학기 성적 2.0 이상, 이수학점 12학점 이상(의약학계열 15학점 이상)인 정규학기 학부 재학생 중, 모자이크인정현황표의 포인트 200,000점 이상자 (등록금 초과 장학지급 가능)
 - 장학금 : 20만원~100만원

● 모자이크 장학이란? “학생의 역량강화나 사회공헌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학생 맞춤형 장학제도”

분야	등급별 분류기준	포인트	비고
학업역량	국제단위 3위 이상	500,000	* 포인트 인정 대상기간 : 2016.3.1~2016.11.30
	전국단위 3위 이상	300,000	
	시도단위 3위 이상	150,000	
	교내 경진대회 최우수상	100,000	
	SCI, SSCI급 학술지	500,000	
	SCIE급 학술지	400,000	
사회봉사 역량	국내 우수 학술지	150,000	* 상기 기간 중 취득한 증명서 및 활동내역서 인정
	해외자원봉사	50,000	
	교내외 자원봉사 10시간	10,000	
	한일자(2장)	10,000	
	토익 900점 이상 / 토를(T) 110점 이상	200,000	
	토익 800점 이상 / 토를(T) 100점 이상	100,000	
국제화 역량	JLPT N1급	200,000	* 외국어/한자 성적증명서 인정 기준: 포인트 인정 대상기간 내에 응시 및 발급된 증명서만 인정
	JLPT N2급	100,000	
	HSK 6급 이상 / 신 HSK 5급 이상	200,000	
	HSK 5급 / 신 HSK 4급 210 이상	100,000	
	DELF C1 - C2	200,000	
	DELF B2	100,000	
	TORFL-2	200,000	
	TORFL-1	100,000	
	ZD befriedigend 이상	200,000	
	ZD ausreichend 이상	100,000	
	DELE Diploma Superior(고급)/ FLEX 듣기/읽기 901 이상 및 쓰기/말하기 227 이상	200,000	
	DELE Diploma Intermedio(중급)/ FLEX 듣기/읽기 776 이상 및 쓰기/말하기 200 이상	100,000	
	한국어문화 1급	200,000	
	한국어문화 2급	100,000	

※ 기타 지원자격 및 유의사항은 장학팀 홈페이지 및 단과대학 게시판 참조

● 신청방법: 종합정보시스템 > 인터넷신청 > 장학/용자신청 > “2016-2학기 모자이크장학 신청하기” > 개인정보 > 조회 신청 버튼 클릭, 완료(학생 제출서류 없음, 온라인으로 대체) (*학생들은 평소에도 종합정보시스템 > 개인정보 > 개인역량관리 > 개인역량입력 및 증명서류 단과대학 제출)을 하며, 단과대학의 승인 처리를 받아 놓아야 함.)

● 관련문의: janghak@khu.ac.kr / http://janghak.khu.ac.kr, 961-00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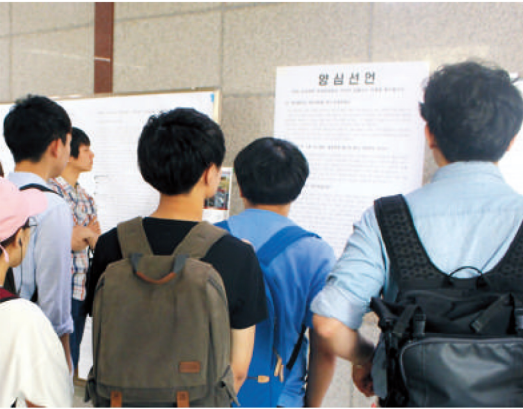
여러 가지 일들로 우리를 찾아왔던 2016년이 저물고 있다. 학기초 체육대학 오티비 38만 원 논란에서부터 학기말 최초의 총학생회장 연임 도전까지 1년 동안 우리 신문은 온라인으로, 지면으로 독자 여러분들을 만났다. 2016년 마지막 신문을 통해 올해 중요한 이슈들을 정리해보고자 한다.

박지영 기자 kitty2988@khu.ac.kr, 임창민 기자 ckdals49@khu.ac.kr

이 제시됐다. 대학 본부 측은 결과가 나오긴 전 “프라임사업에 선정되지 않더라도 계획한 방향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힌 바와 같이, 이어지는 후속 사업에서 정원 조정안을 제출했다. 하지만 국제캠 컴퓨터공학과 증원과 소프트웨어융합공학과 신설 관련 정원 조정계획이 교육부에 제출된 이후에 과정과 절차를 두고 해당 단과대학 교수들과 학교 사이에 갈등이 있었다. 앞으로 프라임사업 계획안은 계속 추진 할 것으로 보이나 속도 조절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5월

“문과대 금품수수 의혹”... “받았다”, “안받았다” 첨예한 대립



지난 5월 30일, 전임 문과대 학생회장이 재임 중 버스 회사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았다는 주장이 대자보를 통해 제기됐다. 대자보를 쓴 사람은 문과대 박원규(사학 2014) 학생회장이다. 박 회장은 대자보에서 “지난 2월 새내기 새로 배움터를 준비하던 도중 버스업체로부터 ‘학생회장 개인 계좌’를 알려달라는 전화를 받았다”며 “짜장면 한 그릇이라도 사 드시라는 의미고, 지금까지 박○○회장, 정○○회장 다 드렸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을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같은 날 역대 문과대 학생회장들은 <그 ‘역대 문과대학 학생회장’들이 답합니다>라는 제목의 대자보를 통해 “안 받았는데 어떻게 증명하면 될까요”라며 결백을 주장했다. 대자보가 게시되고 난 3일 후, 43대 문과대 학생회장을 지낸 박지하(국어국문학 2008) 회장은 ‘문과대 금품수수 의혹’에 반박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박 전 회장은 “문과대 학생회장 당시 통장 거래 내역을 공개하기 위해 나왔다”며 개인통장 내역을 공개할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문과대 금품수수 의혹’ 대

자보가 게재된 30일 오후에 열린 중앙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정경대 이동진(경제학 2012) 회장은 ‘총학생회 교비 및 문과대 대자보 사안에 대한 감사위원회 구성’에 관한 발의안을 냈으며, 다음날 열린 긴급 확대운영위원회에서 발의안이 통과됐다. 감사위원장은 발의안을 낸 이 회장이 맡았다. 감사위원회는 2학기 전학대회에서 감사보고를 하기로 했지만, 정족수 부족으로 전학대회가 열리지 못해 무산됐다. 이후 중앙운영위원회에서는 다음 전학대회 개최에 대해 의결 했지만, 정족수를 넘기지 못해 개최가 성사되지 않았다. 결국 감사보고는 하지 못했다.

9월

합의 없이 자율예산 축소해 학생들 항의 이어져

자율 운영제에 따라 편성된 예산을 말하는 ‘자율예산’을 둘러싸고 학생과 대학본부 간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대학본부가 학생들의 합의 없이 자율예산을 축소했고, 이에 대한 합당한 근거를 학생들이 요구하고 있지만 학교와 학생들 간 상호 소통이 잘 이뤄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자율예산을 둘러싼 갈등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2009년 자율운영제가 도입된 후 학생과 자율운영 단위 혹은 본부 간에는 크고 작은 마찰이 계속돼 왔다. 올해도 학생들은 대학본부 측에 합의 없이 축소된 자율예산의 여파로 인한 고통을 털어 놓으면서 자율예산에 관한 학교와 학생 간의 투명한 소통 회복을 주장했다. 하지만 대학본부 측은 “전체적으로 예전에 비해 예산이 많이 줄어든 것은 사실이지만 소통을 무시한 적은 없다”라는 입장이다. 현재까지도 자율운영제도의 시행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학생과 대학본부와의 소통 문제, 예산 편성 과정과 그 규모를 둘러싼 논란 등 갈등의 소지는 여전하다.



9월

조기취업자 구제 위한 ‘취업계’ 관련 학칙 개정해



지난 9월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김영란법)이 시행되면서 ‘조기취업자들의 출석인정’, 즉 ‘취업계’가 화두로 떠올랐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취업계 관행이 부정청탁행위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이다. 학생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교육부는 법 시행 이틀 전인 26일 각 대학에 자율적인 학칙 개정을 통해 취업계를 해결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우리학교는 취업계에 관한 학칙이 존재하지 않아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타 학교에 비해 더 복잡한 상황이었다. 김영란법 시행 이후 취업계에 관해 논의를 이어온 교무처는 11월 4일 ‘조기취업자 출석인정에 관한 시행세칙’을 제정했다. 세칙 적용 대상자는 마지막 학기 등록자로서 당해 학기 수강으로 졸업이 가능해야 하며, 채용을 조건으로 연수 또는 수습과정인 사람도 포함된다. 학점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유발생 후 10일 이내 출석인정신청서와 수강신청확인서, 재직증명서와 4대 보험 가입서를 소속 학과장 확인을 받은 후 원본은 소속대학 행정실에, 사본은 교·강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출석인정은 재학 중 최대 1개 학기만 가능하다.

9월

2017학년도 소프트웨어융합학과 신설

국제캠에 신선헌과인 소프트웨어융합학과가 설립



된다. 소프트웨어융합학과는 우리학교 국제캠 전자정보대학에 소속되며 2017학년도부터 신입생을 받는다. 하나의 전공만을 배우는 다른 과와 달리 전자·기계 공학과 디지털콘텐츠학과, 산업경영공학과 세계의 교과목을 기반으로 세부 전공 트랙이 설립될 예정이다. 하지만 몇 가지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다. 컴퓨터 공학과 유사학과라는 정체성의 문제, 전자정보대학의 공간 부족 문제와 더불어 재정 부족의 문제도 있다. 또한 무리한 단과대 설립 추진이라는 시각과 신설 학과 설립 과정에서 소통이 부족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지난 10월 26일 1차 소통회의를 시작으로 이에 대한 논의는 꾸준히 이뤄지고 있다.

11월

국제캠 총학생회장 사상 최초 연임 도전 실패

지난 11월 1일 총학생회(총학) 김병경(체육학 2009) 전 회장이 재선을 위해 총학 선거 후보 등록을 했다. 10월 31일 김 전 회장의 개인 페이스북에 ‘사퇴서’를 올리고 바로 다음 날에 벌어진 일이다. 국제캠 총학 회칙에는 연임 여부에 대한 항목이 없어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례적인 일이라 우려의 시선이 많았다. 또한 선거를 총괄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총학에서 함께 일하던 박수지(산업경영공학 2014) 부총학생회장이라 선거의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후 11월 21일에서 23일까지 이뤄진 선거에서 김병경 후보는 60.3%로 전체 투표수의 2/3 이상이 찬성하지 않아 낙선했다.

LEAP Program – Learning English and Practice

한국어 · 외국어전문 교육기관 – 경희대학교 국제교육원

가. 접수 기간 : 2016. 12. 05.(월) ~ 2017. 01. 18.(수)

나. 강의 기간 : 2017. 01. 23.(월) ~ 2017. 02. 16.(목) / 4주간

다. 프로그램 일정

LEVEL TEST	2017. 01. 18.(수) 17:00	
입교식	2017. 01. 23.(월)	
Game Day	2017. 02. 03.(금)	
수료식	2017. 02. 16.(목)	
모집인원	한 반 정원 15명	
강의대상	LEAP	초 · 중급 영어 구사자
	LEAP Advanced	중 · 고급 영어 구사자
수강료	Half-Day Course (오전 or 오후) : 330,000원(교재비 포함) / Full-Day Course(오전 + 오후) : 595,000원(교재비 포함)	

라. 강의시간표

시간	강좌	LEAP	LEAP Advanced
10:00 ~ 11:20		English Conversation	Discussion & Debate
11:30 ~ 12:50		Reading the World	Book Club
14:00 ~ 15:20		Practical Writing	Academic Writing
15:30 ~ 16:50		Screen English	Cultural Arts
※ 월 ~ 목(주4회) / 1일 6시간			

※ 일정 및 시간표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바. 특전

– 경희대학교 총장 명의 영문 수료

– Full-Day Course 수강 시, 성적, 출석 80% 이상일 경우, 영어1/대학영어 면제 (서울캠퍼스 학생에만 해당)

Tel. 02) 961-0081~2 Web. <http://www.iie.ac.kr>

외국어 강좌

한국어 · 외국어전문 교육기관 – 경희대학교 국제교육원

● 기간 :

정규 외국어강좌 기간(6주) : 2017.01.02.(월) ~ 02.10.(금)

정규 등록기간 : 2016.12.12.(월) ~ 2016.12.30.(금)

추가 등록기간 : 영어 : ~ 2017.01.13.(금) 제 2외국어 : ~ 2017.01.06.(금)

● Level Test

영어회화 : 2016.12.28.(수), 12.29.(목) 17:30 (※ 영어 샘플강의 : 2016.12.28.(수) 17:15)

일본어/중국어/스페인어회화 : 12.28.(수) 17:15

테스트 후 반 배정 : 2016.12.30.(금) 저녁 6시 이후 www.iie.ac.kr에서 확인

● 강의일정

영어회화	시간	오전반 07:45~08:45 (월~목)		오후반 18:00~19:20 (월, 수, 목)			
	레벨 수강료	Basic / Beginning / Intermediate / Advanced 150,000원					
Ted Talk	시간	오후반 18:00~19:30 (화)					
	레벨 수강료						
일본어	시간	오전반 07:45~08:45 (월~목)		오후반 18:00~20:00 (월, 수)		오후반 18:00~20:00 (화, 목)	
	레벨	초급1 / 초급2 / 중급1 / 중급2 / 고급		초급1 / 초급2 / 고급		중급1 / 중급2	
	수강료	150,000원					
중국어	시간	오전반 07:45~08:45 (월~목)		오후반 18:00~20:00 (월, 수)		오후반 18:00~20:00 (화, 목)	
	레벨	초급1 / 초급2 / 초급3 / 중급1 / 중급2 / 고급		초급2 / 초급3 / 중급2		초급1 / 중급1 / 고급	
	수강료	150,000원					
스페인어	시간	오전반 07:45~08:45 (월, 수)	오전반 07:45~08:45 (화, 목)	오후반 17:30~19:00 (월, 수)	오후반 17:30~19:00 (화, 목)	오후반 19:00~20:30 (월, 수)	오후반 19:00~20:30 (화, 목)
	레벨	초급2	초급1	초급1	초급2	중급1	중급2
	수강료	90,000원			120,000원		
프랑스어	시간			오후반 16:00~18:00 (월, 수)	오후반 16:00~18:00 (화, 목)	오후반 18:00~20:00 (월, 수)	오후반 18:00~20:00 (화, 목)
	초급1			초급2	초급3		
	레벨 수강료			150,000원			
독일어	시간			오후반 17:30~18:50 (화, 목)	오후반 19:00~20:20 (화, 목)	오후반 18:30~19:50 (수, 금)	
	초급1			초급2	초급3		
	레벨 수강료			120,000원			

Tel. 02) 961-0081~2 <http://www.iie.ac.kr>

보도

미래창조스쿨 설립은 되나
남은 기간 3달, 일방 추진 우려도

김도엽 기자 wogmd567@khu.ac.kr

미래창조스쿨이 설립에 난항을 겪고 있다. 예정대로라면 지난 9월 교육과정을 발표하고 학생수요 조사를 진행해야 했지만, 출범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목표했던 2017학년도 1학기 개설까지 남은 시간은 약 3달 뿐이다. 앞으로 미래창조스쿨의 진행방향이 더욱 궁금해 질 수 밖에 없는 이유다. 이에 대해 21세기혁신위원회 유정완 사무총장을 만나 현재 진행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들어봤다.

미래창조스쿨은 추진 전부터 논란이 많았다. 지난 8월 구성원들은 미래창조스쿨 추진안에 대해 알지 못한채, 외부 언론을 통해 처음 관련 소식을 접했다. 서울캠퍼스(서울캠) 총학생회는 미래창조스쿨에 대한 공개질의서를 유 사무총장에게 요청했고, 서울캠 교수회의(의장 : 유원준 교수)는 대자보를 통해 미래창조스쿨 중단을 요구했다.(관련기사 : 대학주보 1610호 6면)

출범까지 남은 3달의 기간

동계방학과 겹쳐 일방 추진 우려돼

미래창조스쿨은 관련 교과들의 이수를 통해 졸업 시 미래창조스쿨 이수를 인증하는 인증서를 부여한다. 추진 교육과정(안)에 따르면 필수교육과정은 ‘Core-Track 1,2’(가칭) 2가지 트랙이며, 분야별 교육실천 프로그램은 ‘취업’, ‘창업’, ‘사회 진출’, ‘새로운 삶의 방식’(가칭) 4가지 트랙으로 구성된다. 인증받기를 원하는 학생들은 필수교육과정을 이수 후 분야별 교육실천 프로그램 중 한 과 과정을 이수하면 된다. 유 사무총장은 “아직까지 교육 과정에 대한 확정은 이뤄지지 않았다”며 현재 “교육과정에 대한 초안 자료를 모으고 있으며, 학생들과의 소통을 거쳐 2017년 1학기 개설을 계획 중이다”라고 말했다. 추가적으로 유 사무총장은 “1학기 시행 후 수정과 보완을 거쳐 2학기에는 완전히 시행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2011년 출범 이후 ‘인문학’ 중심의 교육과정을 유지해온 후마니타스칼리지가 취업·창업의 교육을 지향하는 것은 기존의 기조를 잃고, 대학이 취업사관 학교로 가는 것은 아닌가 하는 비판이 일기도 했다. 이에 대해 유 사무총장은 “우

리학교 취업률이 60%에도 미치지 못한다. 처음 기획 의도는 미취업자 40%에 대한 대학의 책임으로부터 시작됐다”라며 “양날의 칼이다. 현재의 대학은 상아탑도, 취업사관학교도 아니지만 취업·창업 부분 강화에 대한 학생들의 수요를 대학은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A학생은 “미래창조스쿨 인증서가 앞으로의 취업에 실효성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졸업장에 인증했다는 표시가 없는 것 보다는 있는 것이 더 나을 수 있겠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B학생은 “기존에 후마니타스칼리지가 지향해온 방식을 한 번에 깨뜨리는 일이다”라며 “대학이 취업을 위한 공간으로 흘러가는 것은 아닌지 안타깝다”라고 말했다.

현재 미래창조스쿨 교육 실천 프로그램 개발을 담당하는 우기동(지구사회봉사단) 교수는 “프로그램 구성에 교수나 직원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논의 중이다”라고 말했다. 지난 7월 발표된 ‘경희 미래창조스쿨 설립 추진(안)’에 따르면 9월에 교육과정(안)을 발표 후 학생수요조사와 인식조사를 할 예정이었지만, 현재까지 초안도 발표하지 못하고 있다.

약 4개월이 늦어지고 있는 이유에 대해 우 교수는 “8월 중 논의가 이뤄졌어야 했지만 미래창조스쿨 설립위원회 기구문제, 인선문제 등으로 늦춰지고 있는 것 같다”며 “미래창조스쿨 설립이 학생들을 위한 것임을 인식하고 있다면 대학본부 측이 행정적인 부분에서 적극적인 행동을 취해 주면 좋겠다”라고 당부했다.

유 사무총장은 2017년도 1학기 개강 전 미래창조스쿨 교육과정을 희망하는 학생들의 신청을 받겠다고 했다. 하지만 남은 시간은 약 3달 뿐이고 그마저도 동계 방학과 겹쳐 구성원에게 충분한 공지 없이 시행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대해 유 사무총장은 “학생혁신기획단들을 선발한 상태이며 각 기획위원에게 100명 정도의 설문 조사와 홍보를 요청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국제캠퍼스 학생혁신위원단 윤 태(생체의공학 2011) 단장은 “미래창조스쿨은 학생혁신위단 내부에서도 학교 측과 학생 사이의 소통이 원활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었다”라며 “학생혁신위원들이 직접 학생들에게 소개를 하고 설문을 받는 방식으로 학기가 끝나기 전에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답했다.

찾집 ‘녹원 폐업’ 기사 최다 조회
국제 총학회장 사퇴도 1만 조회 관심

2016 대학주보 기사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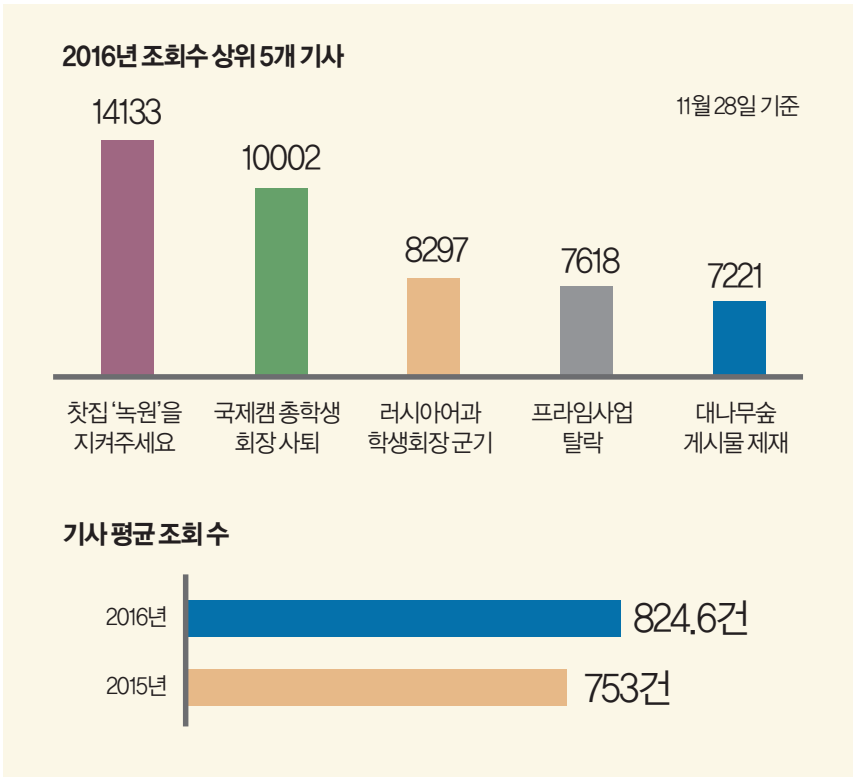
김규래 기자 rlarbfo41@khu.ac.kr

우리 신문에서 올 한해 쓰인 기사를 분석한 결과, 독자들의 관심 지표인 조회 수가 가장 높았던 기사는 “전통 찾집 ‘녹원’의 역사를 함께 지켜주세요”로 나타났다. 이 기사는 32년간 회기동에서 자리를 지킨 찾집 ‘녹원’이 운영상의 어려움으로 폐업 위기에 몰렸다는 내용이다. 14,133건의 조회 수를 기록해 올해 쓰인 기사 중 가장 많이 읽혔다. 지난해 조회 수가 가장 높았던 기사는 조회 수 8,434를 기록했던 ‘17년간 한 번도 바뀌지 않은 영성반점 간판 내린다’라는 기사였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지역사회에 대한 기사가 가장 많은 조회 수를 기록했다.

우리 신문은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536건의 뉴스 콘텐츠를 생산했으며, 기사당 평균 조회 수는 약 824.6건으로 집계됐다. 또한, 조회 수가 많은 상위 20개 기사 평균 조회 수는 약 6,053건이었다. 작년과 비교하면, 지난해 기사당 평균 조회 수는 약 753건이었고, 조회 수 상위 20개 기사 평균은 약 4,468건이었다. 1년 사이에 기사당 평균 조회 수가 약 71건 상승했고, 조회 수가 높았던 큰 사안을 다룬 기사는 약 1,600건의 평균 조회 수가 상승하며 파급력이 더욱 커졌다.

올해 독자들이 많이 읽은 기사는 논란이 될 만한 사안이나 갈등을 유발하는 주제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특히 상반기에 있었던 프라임 사업은 많은 갈등을 낳으며 구성원들의 관심을 끌었다. 사업 준비과정부터 지속됐던 대학본부 측과 학생들의 대립은 탈락이라는 결과를 가져왔고 많은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프라임 사업 관련 기사는 조회 수 상위 10개 기사에 3개가 포함됐으며, 각각 7,618건, 6,840건, 6,209건의 조회 수를 기록했다.

국제캠퍼스 총학생회장의 연임에 대한 기사도 파장을 일으켰다. 총학생회장 사퇴와 이어 연임 도전에 대한 관련기사는 수많은 우려의 목소리를 남기며 10,002건, 6,152건의 조회 수를 기록했다. 대학주보 홈페이지에 등록된 댓글들을 확인해 본 결과, 공약을 이행하지 못한 채 사퇴하는 것에 대한 비판과 사상 초유의 연임 도전



에 대해 걱정하는 내용이 주를 이뤘다. 올 한해는 논란거리도 끊이지 않았다. 러시아어학과 전 학생회장이 개인 페이스북에 ‘선후배간 위계질서’가 없다며 저학번을 비난하는 글을 작성해 논란이 됐다. 악습을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해 신입생들에게 부담함을 강요하는 상황은 러시아어학과 학생들을 비롯해 다수의 타과 학생들까지 분개하게 했다.

또한 학내 성 갈등도 많은 논란거리를 낳았다. 경희대학교 대나무숲 페이스북 페이지에 감압적인 술자리에서 피해를 받았다는 글이 게시되자 가해자의 성별을 묻는 댓글이 달렸고, 이내 가해자에 성별 프레임이 씌우려 하느냐는 논쟁이 이어졌다. 이 사건은 상대방을 비방하는 것이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효율적이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었으며, 성 갈등을 완화하기 위해 우리가 취해야할 자세에 대해 생각해볼 계기를 던진 사건이었다. 논란이 된 두 사건은 각각 8,297건, 7,221건의 조회 수를 기록했다.

댓글이 가장 많았던 기사는 프라임 사업 관련기사가 압도적이었다. 댓글 수를 기준으로 1위부터 5위까지 모두 프라임 사업 관련기사였다. 5개의 기사에만 댓글이 622개 등록됐는데, 계산하면 기사 한

건당 평균 124.4개의 댓글인 셈이다. 올해 뿐 아니라 작년의 댓글 지표를 살펴봐도 프라임사업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도는 더욱 명확하게 드러난다. 작년에는 무려 댓글 수 상위 10개 기사가 모두 프라임사업과 관련된 기사였다. 캠퍼스 간 불분명한 이원화 문제를 비롯해 프라임 사업 준비과정까지 학생들의 10개 기사에서 총 1,075개의 의견이 등록됐다.

우리 신문이 올해 발행한 기사의 평균 댓글 개수가 3.1개, 작년 기준 2.5개인 것을 감안하면 프라임사업은 많은 학생들이 관심 있게 지켜봤고, 의견을 적극적으로 피력한 사건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프라임사업을 기회로 삼아 캠퍼스 통합을 이뤄내려 했지만 사업에 탈락한 현 상황에서 통합에 다다르기 위한 대안이 요구된다.

우리 신문은 올 한해 종이신문으로 기사를 배포하던 방식을 축소하고, 모바일 퍼스트를 지향하며 대학주보 페이스북 페이지, 이메일 뉴스레터 등으로 기사 전달에 힘썼다. 그 결과 기사 조회 수, 댓글 수의 상승을 이끌어내며 독자와 소통 확대를 이끌어냈다. 내년에도 다방면으로 기사를 생산하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독자를 찾아가는 대학주보가 되도록 노력하겠다.

2016학년도 2학기 강의평가 실시 안내

2016학년도 2학기 '강의평가'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모든 재학생들은 '강의평가'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의평가 결과는 수업의 질 개선과 신규과목 개설의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므로 정확한 평가를 위해 학생들의 신중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 강의평가 변동사항(2016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
 - 수시평가가 폐지되고 학기말 평가만 실시
 - 문항수가 10개에서 9개로 변경
 - 팀티칭 강좌는 1회만 평가
 - 수업유형과 관계없이 공통 문항으로 실시

- 1. 기 간 : 2016.12.01(목) ~ 12.29(목)
- 2. 대 상 : 서울 · 국제 캠퍼스 재학생(학부 및 대학원생)
- 3. 대상강좌 : 학부 및 대학원 전체 개설 강좌
- 4. 성적 열람 및 공시 기간 : 2016.12.30(금) ~ 2017.01.03(화)
- 5. 강의평가 실시 여부에 따른 성적 조회 기간
 - 강의평가 실시 학생 : 2016.12.15(목) ~ 2016.12.29(목), (단, 12.26~12.27 제외)
 - ※ 성적입력이 완료된 강좌에 한함

- 강의평가 미실시 학생 : 2016.12.30(금) ~ 2017.01.03(화)

6. 강의평가 실시 방법

- 1) 종합정보시스템 접속 → 수업/성적/상담 → 수업 → 강의평가 클릭
- 2) 강의평가 강좌 목록에서 강의평가를 실시할 강좌를 클릭
- 3) 화면 상단의 답변방법 설명에 따라 설문문항을 모두 답변한 후, 강좌에 대한 개방형 질문(자유의견)을 입력하고, 하단의 [저장] 단추 클릭(저장 후 수정 불가)
- 4) 강좌목록 화면에서 평가를 마친 과목이 [미실시]에서 [실시]로 변경된 것 확인
- 5) 실시한 과목의 평가내용을 다시 보고 심을 경우에는 강좌를 클릭하여 조회
- 6) 목록에 있는 다른 강좌들도 같은 방법으로 모두 강의평가 실시
- 7) 강의평가 강좌 목록에서 모든 강좌가 [실시]로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 후 화면 하단의 [로그아웃]을 클릭하여 강의평가 종료
- 8) 강의평가를 잘못 실시한 경우 소속 단과대학 행정실의 강의평가 담당자에게 문의
 - ※ 강의평가는 공정성을 위하여 익명으로 진행됩니다.

교무처 학사지원과

12월 둘째 주(12.05~12.09) 취업진로 프로그램 안내

‘취업 · 진로 준비!! 취업진로지원처와 함께 하세요.’

1. 기업체 채용행사 및 취업특강

행사명	일시	장소	비고
투이컨설팅 채용설명회	12.09(금) 15:00~16:00	중앙도서관 1층 시청각실	채용부문: 빅데이터 분석, 경영관리, 컨설팅(프로젝트관리, 디지털 혁신, 글로벌, 기술체계, 데이터품질)

- ※ 위 일정은 기업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참가방법 : 사전 신청 필요(행사 당일까지 가능)
- 종합 정보시스템 - 인터넷 신청 - 연수 신청 - 해당 설명회 '신청하기' 클릭 - 완료
 - ※신청 후 '합격여부' 발표는 하지 않습니다.
 - ※사전 신청 학생 및 당일 현장 신청도 가능하며, 신청서는 당일 해당 장소 출입문 쪽에 비치 함.
- ◆ 출석 협조전 발급 : 각 채용설명회 종료 후 현장(설명회장 입구)에서 발급 및 배부
- ◆ 기타 사항은 취업진로지원처 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취업행사 카렌다 참고.

2. 취업진로지도 맞춤 컨설팅 (취업상담)

- ◆ 대상 : 본교 학부 재학생, 졸업생

상담유형	일시	담당 컨설턴트	장소	신청방법
개인	월요일 ~ 금요일 (진로 컨설턴트)	이연의, 오신종	오바스를 354호,356호	종합정보시스템 「수업/성적/상담」 신청
		박언경	제법학관 107-2호	
집단	12.06(화),16:00~17:30 (최대 15명 가능)	홍상기	청운관 6번 상담실	
		“취업준비,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이종구 컨설턴트	청운관 1층 4번 상담실	

- ◆ 상담 내용 : 자기소개서 및 이력서 작성법 지도, 면접스킬 지도, 기업 및 직무 분석법, 로스쿨 진학 등
- ◆ 상담 신청자 의무 : 취업준비도 검사(취업진로지원처 홈페이지 하단에 위치) 상담 전 · 후 각 1회 (총 2회) 필수
- ◆ 주의사항
 - 상담 당일 취소 불가 (상담 당일 1일 전까지 가능. 취소 시 전화 연락)
 - 이력서와 자기소개서에 대한 피드백이 필요한 경우 당일 2부씩 출력하여 지참(필수)

3. 취업진로지도 맞춤 컨설팅 (진로상담)

- ◆ 대상 : 본교 학부 재학생(1~3학년)
- ◆ 상담 내용 : 진로의 선택의 중요성, 진로선택 방법, 취업진로지원처 소개 등

상담유형	일시	컨설턴트	장소	신청방법
진로 상담	12.09(금) 15:00~16:00	한상백	청운관 1층 취업진로지원처 회의실	종합정보시스템 「수업/성적/상담」 메뉴에서 신청

자세한 사항은 취업진로지원처 홈페이지 공지사항 확인해 주세요

서울캠퍼스 취업진로지원처

헌법 개정, 과연 필요한가

전문가 칼럼

정 완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국정치사상 초유의 국정농단사건 피의자로 임건된 박근혜 대통령이 검찰에 의해 임건됐다. 국민이 퇴진을 주장하는 가운데, 여당도 이 사건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지만 그들은 박 대통령의 하야를 막고 정치생명을 연장하기 위해 대통령의 임기단축을 포함한 대통령중임제 또는 의원내각제로의 헌법 개정을 적극 주장하고 있다. 야권에서도 일부 이에 동조하는 의견이 있는 듯하다.

사실 권력구조에 관한 개헌 논의는 대통령 임기 말에 단골로 제기되어 온 문제다.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하자거나 혹은 의원내각제로 바꾸자는 것이지만, 전임 대통령은 시간이 부족해서, 후임 대통령은 임기 초반부터 개헌을 논의하는 것을 꺼려해서, 결국은 개헌을 시도하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됐다.

그동안 제기되었던 개헌주장의 취지는 1987년 도입한 대통령 5년 단임제가 벌써 30여 년이나 흘러 현 시점에선 어느 정도 민주정치체제가 정착됐다는 것이다. 이를 대통령중임제나 의원내각제로 전환해 대통령이 업무를 좀 더 긴 기간 동안 실질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현 정치상황만 보면 민주정치체제가 정착되기는 커녕 오히려 후퇴한 듯하다.

대통령 재임기간 5년을 반드시 짧다고 만든 할 수 없다. 과거 단임제 대통령들의 ‘업적’을 보면, 재임기간이 부족해 업무를 추진하지 못했다 기보다는 오히려 각종 부정부패 비리가 끊아터져 레임덕 현상만 심해졌던 것을 기억한다. 심지어 현 대통령에 이르러서는 누군가의 결재를 받아 통치한 부통령에 불과하다는 모욕적인 말까지 듣고 있다. 상황이 이러한데 만일 중임제로 개헌한다면 이번에는 재집권을 위한 과도한 무리수가 행해질 것이 뻔하다. 이에 따른



마찰과 국론분열로 우리나라 민주정치체제는 더욱 후퇴할지도 모른다. 통치를 제대로 하지 못한 정권이 있을 때 5년만 참고 지내면 정권을 바꿀 수 있다는 희망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 것인지 몇 차례의 경험을 통해 우리는 잘 알고 있다.

대통령제의 문제점으로 과도한 권력집중, 국회의 위상저하, 부정부패 심화 등이 지적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점이 대통령제 자체에 기인하는 것으로 단정 지어서는 안 된다. 미국식 대통령제로 대표되는 대통령중임제가 제3세계 국가, 특히 남미에서는 거의 실패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국회의 위상저하 문제도 지적되고 있다. ‘정치의 장’이 돼야 할 국가가, 대통령의 지침에 따라서만 움직이는 다수당과 소수지도자에 의해 움직이는 야당이 만나는 대리정치의 장으로 전락한 것은 우리나라 대통령제의 가장 심각한 폐단이었다. 이것은 의원내각제 도입을 주장하게 된 계기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러한 폐단들은 대통령제의 원형인 미국에서도 발생하고 있는 공통 현상이고 우리나라만의 특

이한 현상은 아니다. 따라서 이러한 폐단은 꾸준한 제도 보완과 정치적 노력을 통해 차분히 해결돼야 할 사항들인 것이다.

우리나라가 헌법상 대통령단임제를 채택한 것은 과거 독재자에 의한 무소불위의 독재정치와 장기집권을 종식시키고 민주정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를 통해 특정 독재자에 의한 권력 연장 시도를 막을 수 있었고 평화적 정권교체의 염원을 실현할 수 있었다. 재집권이 불가능한 대통령단임제를 채택한 후 정치공작이 현재지 줄어들었다는 점에서 대통령단임제 실시는 일단 성공적이라고 할 수 있다. 영원히 불가능할 것으로 보였던 야당의 평화적 정권교체가 이루어졌고 10년 후에는 다시 국민에 의해 반대 정권이 선택돼 9년이 지난 오늘에 이르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현재의 정권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해 이 정권에 계속 맡길 수 없다고 국민이 판단한다면 선거를 통해 정권을 교체하면 될 일이다.

만일 대통령 4년 중임제나 의원내각제로 개헌했는데 국가운명을 만신

창이로 만든 집권자가 재집권마저 획책해 정권교체가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국민의 실망감과 반발, 국론분열은 어떻게 할 것인지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나라는 이미 대통령중임제와 의원내각제의 경험을 충분히 했다. 대통령중임제의 부작용으로 이승만, 박정희 독재정권을 경험했다. 장면 내각의 몰락을 통해 의원내각제의 허술함도 경험했다. 의원내각제가 장기집권을 막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일본의 아베정권이 대통령제만큼이나 강력하고 장기에 걸친 집권을 이어나가고 있는 것이 그 증거다.

대통령단임제의 최대장점은 평화적이면서도 민주적인 정권교체가 용이하다는 점이다. 이러한 점은 우리나라 정치사에 여전히 가장 필수적인 기능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대통령은 길든 짧은 5년의 임기 동안 청렴한 공직수행과 오로지 국민을 위한 정책만을 생각하면 된다. 무능하고 부패한 대통령이 언제든지 출현할 수 있는 우리 정치풍토에서는 현행 헌법상의 대통령단임제가 필수적인 정치제도인 것이다. “제도가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문제다”

참여마당

김강인
(경영학 2012)



당당하게 말하는 사람이 되자

자신의 생각을 다른 사람 앞에서 당당히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은 부럽고도 멋진 일이다. 나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을 표출하기에 앞서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본다. 눈치를 보다가 결국 답아둔 생각을 표현하지 못하고 만다.

그리 어렵지 않게 그 사례를 주변에서 찾을 수 있다. 교수 혹은 강연자가 질문을 했을 때 자신의 의견이 혹시 틀릴까봐, 말하지 않고 다른 누군가가 손을 들길 기다린다. 누군가 대답을 하고 나서야 ‘나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혹은 ‘내가 생각한 게 정답이 맞았네’라고 생각하는 경우다. 대부분 손을 들지 않았던 사람들은 ‘내가 말할 걸’하는 아쉬움을 갖지만, 이 또한 표현되지 않는 다. 그저 속으로 아쉬워 할 뿐이다.

다른 경우도 있다. 청운관 혹은 중앙대자보판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대자보다. 요즘은 다양한 대자보가 보이지만, 이전까지만 해도 많은 학생들이 대자보를 쓰지 않았던 이유는 대자보에 제기될 비판과 생길 수 있는 감정적 대립 등을 염려해서일 것이다. 또한 대자보를 통해 드러난 자신의 정치 성향이 다른 구성원들에게 알게 모를 ‘낙인 효과’로 작용하는 것을 두려워한다. 일상적인 말과 행동이 대자보에 드러났던 정치 성향에 따라 나타난 것으로 비춰질 수 있고, 더 나아가 사회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비판이 두려워 침묵하고 마는 우리들
발언할 때 우리의 권리를 찾을 수 있다

이랬던 내 인식을 깨 준 사람이 있었다. 의경근무를 할 때의 일이다. 어느 때처럼 집회 장소에서 경계근무를 서던 때였다.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희대학교 A학과 B입니다! 저도 이 나라의 시민으로 또 대학교에 다니는 학생으로서 정부에 한마디 하고 싶어 올라 왔습니다” 뒤이어 집회에 모인 많은 사람 앞에서 자신의 의견을 말한 사람은 우리학교 친구였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의견을 당당하게 말할 수 있다는 점은 놀라웠지만 한편으론 정치 성향을 드러내서 나중에 불이익을 받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들었다.

생각해보면 비판을 받는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았나 후회가 든다. 우리 모두는 자신의 의견을 말할 수 있어야 한다. 만약 그릇된 생각을 가진 사람만 이야기를 하고, 비판이 두려워 잘못되었음을 알면서도 침묵해버릴 때, 침묵은 동의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집회에서 발언을 했던 그 친구는 “아무도 자신의 생각을 말하지 않는다면, 상대방의 주장이 옳은 거라고 인정하는 꼴이 아니냐”라고 말했다. 비판과 불이익이 두려워 침묵한다면 결국 더 큰 불이익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말이다.

우리의 권리찾기는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어떤 한 개인의 의견이 모두의 침묵을 만나 모두의 생각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을 막기 위해 모두가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지금까지 소극적이었던 나 자신에 대한 후회를 과거의 일로 치부하지 말고 지금 당장 사소한 것부터라도 자신의 의견을 말해보자.

365일, 디자인이 반짝입니다 중앙일보미디어디자인

브로슈어에서 전단, 잡지, 신문 제작, 광고물 제작까지
언제나 반짝이는 아이디어가 당신을 빛나게 해드립니다

J 중앙일보미디어디자인



보도

대학과 지역사회, 추운 겨울 오고 가는 따뜻한 마음

#. 우리학교와 지역사회 역시 지난 몇 년간 끈끈한 교류를 이어오고 있다. 예를 들어 경희 몰래산타는 지난 2007년부터 지역에서 소외된 이웃들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전하고 있다. 또 학교 주변 후원의 집은 2005년부터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후원에 왔다. 우리신문은 연말을 맞아 경희 몰래산타들이 전하는 크리스마스 선물과 후원의 집이 보내온 따뜻한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담아왔다.

최병헌 기자 chbh1027@khu.ac.kr
류제원 기자 jennyoo95@khu.ac.kr

① ‘몰래산타’ 그들이 건넨 크리스마스 선물

‘몰래산타’는 경희지구사회봉사단(GSC)이 지난 2007년부터 주관하는 프로젝트다. 학생 자원봉사자 200~300명으로 이뤄진 산타와 루돌프들이 크리스마스에 회기동 지역 다문화 가정 아이들과 홀몸 어르신들을 찾아가 선물을 전달한다. 지난해에도 그들은 학교 주변의 80여 가구를 방문해 아이들을 위한 장난감과 어르신들을 위한 방한용품을 건넸다. 20여일 앞으로 다가온 올해의 활동에 앞서, 작년 몰래산타의 훈훈한 일화를 소개한다.

#1. 산타가 데려온 터닝메카드

작년에 아이들 사이에서는 변신 로봇 애니메이션 ‘터닝메카드’가 제일 인기였다고 한다. 아이들을 위해, 한 몰래산타가 터닝메카드로 변신했다. 직접 상자를 자르고 붙여 의상을 만들고, 가면을 쓰고, 장난감 칼도 뽑아 들었다. 그렇게 변신한 산타는 집 앞에 찾아가 영화 <러브 액츄얼리>의 명장면을 재현했다. ‘터닝메카드’의 뒤로 여

러 산타가 열심히 연습한 캐럴도 불렀다. 당시 터닝메카드 캐릭터로 분장했던 몰래산타 이육용(체육학 2010) 군은 “아이들이 선물을 받을 때 세상을 다 가진듯한 표정은 잊을 수가 없어요.”라고 소감을 표했다. 심지어 몰래산타 행사 다음날에는 아이들에게서 “산타 할아버지, 고맙습니다! 엄마 말 잘 듣고 있을게요. 내년에도 또 봐요!”라는 연락이 왔다는 후문이다.

#2. 고장 난 문손잡이 밖 손님들

작년 크리스마스에, 이문동 골목 어귀에 사는 홀몸 어르신 A 씨의 집에 몰래산타들이 찾아가 문을 두드렸다. 반가운 마음에 문을 벌컥 열려했던 A 씨, 하지만 평소 잘 열리지 않던 문손잡이가 또다시 말뚝을 부렸다. 몰래산타들이 집안으로 들어오지 못하자, 할아버지는 급한 마음에 그만 문손잡이를 부수고 말았다. 애써 문을 연 할아버지는 반갑게 말했다.

“밖에서 기다리게 해서 미안합니다. 여기까지 오느라 추웠을텐데 고생했어요. 문손잡이는 내가 고칠 테니 신경 쓰지 마세요.”

몰래산타는 이날만큼은 할아버지의 손자손녀가 되어 도란도란 담소를 나눴다. 부서진 문손잡이는 이후에 지구사회봉사단 관계자들이 찾아가 수리했다고 한다.

#3. 눈물로 확인한 우리는 하나의 경희인

몰래산타는 학내 관리·미화 노동자들에게도 따뜻한 마음을 전했다. 몰래산타들은 작년 크리스마스 이브에 학내 구성원을 위해 수고하는 경비원과 미화원을 찾아가 직접 만든 초콜릿과 손 편지를 전하며 ‘경희 부모님, 감사합니다!’라고 인사를 드리는 행사를 했다. 몰래산타 하명수(경영학 2011) 군은 “감사 인사를 전하고 나니까 경희 어머니 아버님들이 힘껏 안아주셔서 모두 눈물바다가 되었다”고 당시 분위기를 전했다. 이 날 학내 노동자들은 몰래산타들에게 따뜻한 울무차와 손 편지를 전달하며 다음과 같은 인사를 표했다고 한다.

“우리 아들딸들, 한참 놀아야 할 시기에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을 보면 대견하고 또 안쓰러워. 이렇게 착하고 열심히 하는 우리 학생들! 행복한 일만 가득하길 바라. 사랑해”

올해도 몰래산타들은 크리스마스에 회기동 곳곳을 돌며 지역사회에 사랑을 건넬 것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그동안 어려운 형편의 학생들을 위해 오랫동안 기부해온 ‘후원의 집’을 찾아가 고마움을 전할 예정이다. 산타들의 활약으로 올해 크리스마스이브도 사랑이 넘치는 하루가 될 것이다.

② 후원의 집이 12년간 전해온 경희사랑

경희 후원의 집은 지난 2005년부터 지역사회와 학교의 상생과 발전을 목표로 시작된 사업이다. 학교 주변의 여러 점포들이 모여 학교 측에 장학금을 후원해 우수하지만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 2005년 이후 누적 134개(서울 83개, 국제 51개)의 점포가 가입되어 있으며, 2016년 현재 정기적으로 기부금을 내는 업체는 서울캠퍼스 인근 26곳, 국제캠퍼스 인근 21곳 등 총 47곳이다.

우리신문은 이 중 서울캠퍼스 인근의 26개 업체들 중 업종 별로 20년 가까이 자리를 지킨 세 곳을 뽑아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1. 학생들과 복작대며 꾸러지는 문구점

정문 앞 모닝글로리 문구사를 운영하는 지영근 사장은 지난 2005년부터 꾸준히 학교에 장학금을 기부하고 있다. 그는 1995년 회기동에 작은 매장으로 문구점을 시작할 때부터 학생들을 돕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

“매장에 나와 있다 보면 학생들과도 참 많은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보면 자연스레 학생들 힘든 것도 알게 되고 그러죠... 그런 거 보면 안타까워서 적은 액수라도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시작한 게 벌써 12년이나 되었네요 (웃음).”

그러면서 그는 학교에 기부한 것보다 받은 것이 더 많다고 한다. “나는 늘 학생들과 어울려 사는 사람이니깐, 학생들로부터 젊은 에너지를 많이 받죠. 그런 면에선 난 참 고마워요, 학생들이.”

#2. 인쇄소가 찍어낸 인연

“나한테는 경희대가 참 뭐랄까, 가족 같아요. 내가 20년 넘게 학교 팸플릿이나 영어신문사 <The University Life> 이런 걸 맡아서 인쇄하다 보니까 학교에 정이 간다고 해야 하나? 가족이죠, 가족.”

우리학교에 팸플릿 등을 납품하는 청솔 디자인의 최해규 사장은 1993년 회기동에 처음 자리를 잡았다. 24년이라는 긴 세월만큼 그에게서는 학교에 대한 애정이 가득히 묻어나왔다.

“학교에 행사가 많을 때, 같이 일하고 같이 밤새다 보니까 학교 교직원들과 한술밥 먹는 식구란 생각이 들었어요.”

그는 우리학교 학생에게

종매를 서서 장가도 보냈단다.

“여기 인쇄 작업하러 오던 학생 하나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사람이 관찰아서 건넌집 슈퍼 딸이랑 종매를 썼어요. 지금? 둘이 결혼해서 가끔 놀러 오고 그러죠.”

그는 경희대가 고맙다고 한다.

“내가 학교에 기부하고 있긴 하지만, 학교로부터 받은 게 훨씬 많아요. 좋은 인연도 만나고, 내가 고마워서 하는 거예요.”

#3. 아들 같은 학생들 위해 시작한 기부

지난 2002년부터 달짝지근한 돼지불백으로 식사시간만 되면 학생들이 북적거리는 솔남구 식당 박태준 사장은 대학생인 아들이 생각나 기부를 시작했다.

“처음에 학교 측에서 먼저 제의가 왔어요. ‘학생들을 도와주는 건데 하실 의향이 있으시나?’ 이러기에 아들 생각이 나서 하겠다고 했죠. 그때 마침 아들이 대학생이었거든요.” 그렇게 시작한 후원이 올해로 10년째다.

“사실 많이는 못 해요. 그래도 밑알만큼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꾸준히 하고 있죠.”

가끔 갖는 후원의 집 장학생들과의 만남이 그에게는 큰 의미로 다가간다고 한다.

“학교에서 후원의 집 행사가 있으면 내가 꼭 가요. 가서 장학금을 받는 학생들 만나서 보고 있으면 뿌듯하기도 하고, 내가 적은 돈이라도 계속 기부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후원의 집 업체들이 학교 주변에서 묵묵히 어려운 학생들을 후원한 지도 벌써 12년째다. 이들에게서 본인이 학교를 위해서 무엇인가 한다는 뿌듯함이 느껴졌다. 인터뷰 말미에 사장님들은 약속이나 한 듯이 입을 모아 말했다. “내가 학교에 주는 것보다 받는 게 더 많아요.”

2016년 겨울, 올해도 학교와 지역사회는 따뜻함과 고마움을 주고받는다.

사과 먼저 vs 앞으로의 대안 모색 아동가족학과 학점교류

김도엽 기자 wogmd567@khu.ac.kr

지난 달 29일 서울캠퍼스 생활과학교대 507호에서 아동가족학과 간담회가 열렸다. 간담회의 최대 관심은 지난 7월부터 이어진 학점교류 승인 문제였으며, 그 외에도 보육실습비 지원 확대, 보육교사 자격기준 변경사항 안내 등이 이어졌다. 논란이 되는 ‘학점교류 인정에 관한 규정’은 ‘학점교류로 취득한 과목은 자유선택으로 인정된. 단, 전공 지도교수의 승인을 득한 경우 전공학점으로 인정 가능’이다. 지난 9월과 10월에 학점교류 승인 문제에 관한 대자보를 쓴 금혜린, 유미래, 조가람, 조다현(아동가족학 2012) 학생은 아동가족학과의 전공선택 과목인 ‘정신건강’ 과목을 숙명여대와의 학점교류 시스템을 이용해 이수했고 이를 전공학점으로 인정해달라고 신청했지만, 아동가족학과 김연하 학과장은 불허한 바 있다. 불허 이유로는 첫째, ‘표준교육개요에 어긋나는 커리큘럼과 자격증 취득의 어려움’ 탓에, 둘째, ‘학과회의에서 의결돼 수년 전부터 적용됐던 원칙이 있기 때문’이라고 통지됐다.

간담회에서 이민주(아동가족학 2014) 학생회장은 타 대학 학점교류 승인 기준을 설명하면서, “대학 학칙엔 명시돼 있지만, 아동가족학과 규정에 세부적인 내용이 명시되지 않아 논란이 발생한 것 같다”며 간담회 참석자들에게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생활과학대학 오윤자(아동가족학) 학장은 “이번 간담회는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하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며 “현재 명문화된 학점교류 승인 규정이 학칙에 한 줄 밖에 없어, 다양한 사례들을 모아 이를 생활과학대학 내 명문화

된 규정으로 명시하면 차후 문제 발생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혜린 양은 “대안 모색을 하기 전에, 그 전에 있었던 문제를 명확히 알고 논의를 시작해야한다”고 지적하면서 “해당 문제가 재발하지 않는다고 약속하는 것이 모든 논의의 시작”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오학장은 “지난 번에 있었던 일을 또 다시 말하면 논의가 진전이 되지 않는다”며 “아동가족학과 교수님들 중 학생들에게 해를 가하려는 교수님은 절대 없다”고 강조했다. 또 오학장은 “해당 교수님들에게 문자 혹은 메일로 문의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면서 “메일, 문자로도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행정실에 찾아가 문의를 하거나, 해당 교수님에게 면담 요청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다현 양은 “학과회의에서 의결돼 수년 전부터 적용됐던 원칙(두 번째 허사유)이 있었다는 것을 아동가족학과 학생들이 몰랐다는 것이 잘못된 것 같다”며 “불허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 미리 공지가 이뤄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김별빈(아동가족학 2012) 양은 “지난 번 회의에서 모 교수님이 반말과 삿대질로 폭언을 한 것에 대해 학생들이 사과를 못 받은 것이 안타깝다”며 “앞으로는 간담회라는 공식인 자리에선 부적절한 언행이 없도록 교수님들, 행정실 직원분들, 학생들이 다 같이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자리가 되도록 노력하고 원활한 의사소통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발언했다.

이날 자리에서 지난 번 논란이 됐던 A 교수의 공개 사과 여부에 대한 문제는 해당 교수의 불참으로 논의되지 못했지만, 명확한 가이드라인 명문화에 대한 사례 정리의 필요성에 관해서는 참석자 모두가 공감했다.



경희대학교 음악대학 오케

경희대학교 송년회
Magnolia 2016

목련회의 · 목련음악회

일시: 2016년 12월 16일 금요일 장소: 평화의 전당
1부 목련회의 오후 7시
2부 목련음악회 오후 8시 20분

2016 경희의 한해를 돌아보고 새 희망을 공유하는 목련회의,
클래식과 대중음악이 어우러지는 선물같은 음악회
“경희대학교 송년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P. Tchaikovsky | <Swan Lake> (백조의 호수) 中 Waltz
G. Gershwin | <Rhapsody in Blue> - 임효선(피아노)
G. Bizet | Opera <Carmen> 中 “Chanson du torreador” - 강명규(바리톤)
G. Bizet | Opera <Carmen> 中 “Havanera” - 이아경(메조 소프라노)
J. Strauss | Opera <Die Fledermaus> (박쥐) 서곡
크리스마스 캐롤 매들리



유주현



김현

문의: 서울캠퍼스 매리엄컬처 02)961-0932-3
※ 좌석은 선착순 자유석(무리)입니다.